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왕국 생활에 필수적인 기도

성경: 마 6:6, 9-13, 눅 11:1-13, 19:46

- I. 왕-구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눅 3:21-22, 5:16, 6:12, 9:16, 23-24, 28-29, 22:31-32, 39-41, 44, 23:34, 46-47, 시 102:7, 109:4)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눅 19:46, 비교 2:49) 기도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했다(눅 11:1).
- A.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요 10:30.
 - B.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혼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매 순간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다 — 행 10:38상, 요 8:29, 16:32하, 비교 출 33:14, 고후 2:10.
 - C.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 벰전 2:23하, 눅 23:46.
 - D.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그 안에서 어떤 것도(어떤 일에서든 조금의 입지나 기회나 기대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셨다 — 요 14:30하.
- II.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이다.
- A.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9상절)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1.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도는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는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며’는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그 영과 관련된다 — 마 6:9하-10.
 - a. 이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오는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 시 8:1, 계 11:15.
 - b.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이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마 6:10하). 왕국 백성은 오는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2.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요구는 방어하는 기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 마 6:11-13상.
 - a. ‘일용할 양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b. 왕국 백성은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해) 자기들에게 죄 빚진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 자기의 죄 빚과 실패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 마 6:14-15, 골 3:15.
 - c.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 마귀와 또 마귀에게서 나온 악에서 구출되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 요 17:15, 엡 5:16-18, 6:13.
3.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높이 찬양하는 기도인 경건한 삼중 찬양으로 끝마친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아들에게 속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영께 속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수행된 결과로 아버지는 영광 안에 있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신다 — 마 6:13하.
- a. 이처럼 주님의 기도의 본은 신성한 삼일성으로 시작하여 신성한 삼일성으로 끝난다.
 - b. 주님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끝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 B. 이러한 필수적인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인 천국을 더욱더 추구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천국의 지극히 높고 엄격한 모든 요구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신성한 은혜의 공급을 우리에게 준다.

III.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 결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 A. 우리는 체험 가운데서 자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 B.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 시 5:3, 사 50:4.
- C.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 D.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 — 눅 11:5-13.
 - 1.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며, 달걀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성령은 이 세 가지 풍성의 총체이시다.
 - 2.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여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떡과 생선과 달걀로 상징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도 먹고,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도 먹일 수 있다 — 요일 5:16상, 고후 3:6, 행 6:4.
- E.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곧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공급으로 채워지고 점유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어둠을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게 된다 — 눅 11:14.
- F. 우리는 신성한 공급의 풍성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 — 눅 11:33-36, 마 5:8.

- G.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 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막 8:34, 9:29, 골 4:2, 갈 2:20, 빌 3:3, 4:6-7, 11-13.
- H.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 갈 2:20.
- I. 심지어 “오, 주 예수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짧은 기도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롬 10:12-13.

IV.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익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 왕상 8:48.

- A.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하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골 1:12, 2:6-7, 신 8:7),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시 48:1-2), 거룩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한다(엡 2:21, 딤후 3:15).
- B.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단 6:10.
- C.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